

윤봉길

최승우

윤봉길의 본이름은 우의다. 봉길이라는 이름은 독립 운동
할대 지은 별명이다. 그리고 윤봉길은 학교를 그만두고
오치숙이라는 선생님을 찾아가 많은걸 배우고 성장 했

윤봉길은 1930년 상하이로 가서 김구의 한일 애국단에
가입 하였다. 1932년4월29일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
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 축하공원에 폭탄을 던져 시라
카와

요시노리 대장을 죽이고 요인에게 부상을 입힌뒤 일본경찰
에게 붙잡혀 1932년 12월 18일 7시 40분에 총살되고 말았다
또 윤봉길은 끝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끌려갔다.

폭탄을 던지기전에 김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김구는
백범 일지를 썼다. 근데 김구는 어른 윤봉길을 보내는
생각에 마음이 걸렸다.

윤봉길은 나라를 위해 추구하신 분이다.

